

宋代 茶文化 양상과 蘇軾의 內儒外道

—蘇軾의 詠茶詩를 중심으로

임진호*, 김미량**

<目 次>

1. 들어가는 말
2. 宋代의 茶文化 양상
 - 1) 儒佛道 사상과 飲茶之風
 - 2) 文學의 사회적 작용
 - 3) 예술형식의 개척
3. 蘇軾 茶詩에 보이는 內儒外道
 - 1) 以茶嘆世의 현실인식
 - 2) 曠達情懷의 초월의식
4.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송대 사회에서 차는 마시는 음료라는 인식이 보편화 되면서 “차는 당대에 흥성하여 송대에 번영했다”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송대 사회 전반에 차문화가 널리 보급되었다.¹⁾ 더욱이 송대 태종이 태평흥국 2년에 貢茶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北苑을 建州에 세우고 공차제도를 확립함에 따라 송대의 차문화는 공전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고, 사상적으로 유불도의 확산과 융합은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불안감을 해소해주고 정신적인 안정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계층간의 모순을 해소시켜 주는 작용을 함으로써 당시 차는 “군자나 소인 모두 좋아하지 않는 이가 없으며, 부귀한 자나 가난하고 천한 자나 차를 마시지 않는 자가 없었다.”²⁾

* 초당대학교 한중정보문화학과 교수, jhim@chodang.ac.kr

** 초당대학교 한중정보문화학과 전임강사, mrkim@chodang.ac.kr

1) 朱海燕, 《中國茶美學研究》, 湖南農業大學博士論文, 2008, 14쪽.

고 할 정도로 위로는 황제로부터 아래로는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飲茶 문화가 보편화되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비품으로 인식되었다. 이는 바로 王安石이 〈議茶法〉에서 “대저 차는 백성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쌀이나 소금처럼 하루도 없어서는 안 되는 물건”³⁾이라고 한 말과도 부합된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을 바탕으로 차는 송대 문인들의 일상생활에 깊이 스며들어 차를 제재로 시를 짓는 풍조가 자연스럽게 등장하였는데, 이런 점에서는 송대의 대표적인 시인이었던 소식도 예외가 아니었다. 현재 전해오는 그의 시 약 3,000여 수⁴⁾ 가운데 차와 관련된 시는 약 70여 수가 있다고 하며⁵⁾, 于觀亭의 《茶文化漫談》에 의하면 유배시기의 작품 400여 수 가운데 차와 관련된 시가 50여 수가 전한다고 한다.⁶⁾ 이를 반영하듯 소식은 煎茶, 飲茶에 정통하여 차를 심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를 매개로 하여 지음과의 사이에서 서로의 우의를 다지는 交遊詩를 짓는가 하면,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거나, 관리들의 횡포와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고통 받는 백성들의 삶을 노래하였으며, 때로는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나 불우한 자신의 처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초연한 자세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소식의 시를 비롯한 그의 문학에 대한 방대한 연구 성과를 토대로 직접적으로 차와 관련 있는 蘇軾의 시를 선별하여 차시에 투영된 그의 인생관과 문학적 성과를 살펴봄으로써 송대 차문화 발전에 공헌한 蘇軾의 역할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2. 宋代 茶文化의 양상

- 2) 李 觀., 〈富國策第十〉, 《李觀集》, 卷16, 149쪽. : “君子小人靡不嗜也, 富貴貧賤靡不用也.”
- 3) 王安石, 《臨川集》卷70 : “夫茶之爲民用, 等于米鹽, 不可一日以無.” 은 關履權 〈宋代的茶禁與茶戶, 茶販의反抗斗争〉, 《文史哲》, 1978, 第2期, 149쪽 에서 재인용되었음.
- 4) 蘇軾의 시는 판본에 따라 그 통계가 다르게 나타난다. 游國恩이 주편한 《中國文學史》에서는 2,700여 수를 말하고 있고, 陳澧冬의 《蘇軾詩選》과 夏承燾·吳鷺山·蕭滄가 공동 편찬한 《蘇軾詩選注》에서는 모두 4,000수가 전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청대 王文誥의 《蘇文忠公詩編注集成》에서는 2,454수, 馮應榴의 《蘇文忠公詩合注》에서는 2,787수를 언급하였고, 현재 中華書局에서 출판한 孔凡禮의 《蘇軾詩集》에는 2,824수가 수록되어 있다.
- 5) 陳 默, 〈淺析宋代茶文化繁盛的原因〉, 《文史雜誌》, 2004, 第3期, 69쪽.
- 6) 于觀亭, 《茶文化漫談》, 中國農業出版社, 2003, 82쪽.

송대에 이르러 나라의 국력은 당대만큼 강성하지 못했지만 경제와 문화의 발전으로 차의 생산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차 관련 산업은 공전의 번영을 이룩하였다. 차를 마시는 풍조 또한 크게 성행하여 당시 거의 모든 시인이 차를 시문의 소재로 다루었으며, 특히 歐陽修, 蘇軾, 陸游 같은 이들은 그 수가 수십 수에 이를 정도였다.

중국의 시가는 당대에 이르러 형식과 표현수법, 예술수준 등의 모든 영역에서 공전의 발전을 이룩함에 따라 송대 문인들은 시문 창작에 있어 唐詩를 초월하기 위해 부득히하게 자신들만의 독특한 경지를 개척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송시는 사상과 내용적인 측면에서 역대 시가와 비교할 수 없으리만치 그 범위가 넓고 풍부하였으며, 당시 사회생활과 정치생활을 더욱 긴밀하게 결합시켜 詩歌에 표현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일찍이 袁宏道가 언급한 “物에서 거두지 않은 것이 없으며, 法에서 없는 것이 없고, 情에서 펼치지 않은 것이 없으며, 境에서 取하지 않은 것이 없다.”⁷⁾라는 말에서도 짐작해 볼 수 있다.

송시의 한 범주에 속하는 茶詩 역시 다른 시문과 마찬가지로 송대의 시대적 사조를 반영하고 있어 송대의 정치, 경제, 문화 상황은 물론 문인의 사상적 특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소식의 茶詩 고찰에 앞서 송대 차문화의 양상과 그 특징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몇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儒佛道사상과 飲茶之風

송대 차문화의 번영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사상적인 측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송대는 유불도사상이 고르게 발전하여 서로 융합되면서 당시 사회, 특히 文人社會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송대 유학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理學의 발전으로, 理學은 위진 남북조와 수당의 약 700여년 동안 노장사상과 불교 사상의 세력하

7) 《袁宏道集箋校》, 上海古籍出版社, 1981, 710쪽. 《雪濤閣集序》: “于物無所不收, 于法無所不有, 于情無所不暢, 于境無所不取.”

에서 침체했던 유학 사상이 그동안의 노장 사상과 불교 사상의 이론을 흡수·소화하여 새로운 이론체계를 수립하였다. 당시의 이학은 비록 周敦頤, 程顥, 朱熹, 陸九淵 등의 각파로 나뉘었지만 기본적으로는 모두 비교적 완전한 철학적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또한 禪宗 불교도 크게 성행하여 “頓悟成佛”, “澈心見性”의 사상이 널리 전파됨에 따라 불교사상이 민중 속에 깊이 뿌리내렸으며, 문인들의 창작 활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道家사상 역시 몇몇 황제의 제창에 힘입어 송대에 크게 성행하였는데, 이러한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송대는 儒佛道 三教가 하나로 융합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즉 “三教一理”, “三教本一”의 사조가 문인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유행하였으며, 孝宗이 《三教論》을 저술하여 “佛敎로 수신하고, 道敎로 양생하며, 儒敎로 치세한다”⁸⁾고 선양함에 따라 유불도사상은 송대 문인들이 시가창작을 할 때 표현형식이나 치중하는 점에서 서로 차이를 보였을 뿐 처세나 언행, 그리고 思惟 등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淸淨하여 명예나 이익을 탐하지 않은 차의 품성은 老莊은 물론 禪宗사상과도 서로 일치하기 때문에 당대부터 송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고승과 선비들이 차를 즐겨 마시는 풍조가 유행하였다. 그래서 청대 鄭板橋 같은 이는 “이제까지 명사들은 능히 물의 우열을 평할 줄 알았으며, 자고로 高僧들은 鬪茶를 애호하였다.”고 하는 말로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기도 하였다. 먼저 차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송대 대유학자 朱熹의 〈茶竈〉를 살펴보자.

仙翁遺茶竈, 신선이 남긴 차 끓이는 부엌은
 宛在水中央. 마치 물 한 가운데 떠 있는 듯 하구나.
 飲罷方舟去, 차를 다 마시고 방주 타고 떠나니,
 茶烟裊細香.⁹⁾ 차 부엌엔 차 연기 나긋나긋 가녀린 향기를 내네.

이 시의 풍격은 마치 불교의 偈頌 같은 느낌을 줄 정도로 겉으로는 흔적이 보이지 않으나 그 의미는 오히려 더욱 심원하여 주희가 유학의 일대 宗師라는 사실이

8) 劉子健, 《兩宋史研究彙編》, 聯經出版, 1987, 85쪽. : “以佛修身, 以道養生, 以儒治世.”
 9) 朱熹, 〈擇武夷精舍雜咏〉, 《朱熹詩文選譯》, 鳳凰出版社, 2011, 85쪽.

무색할 정도로 그 사상적인 측면에서 불교와 도가사상이 많이 엮여 있다. 특히 이러한 풍격은 당시 대표적인 시인이라고 할 수 있는 蘇軾의 작품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그의 재능과 인생 조우는 그로 하여금 儒佛道사상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게 하였다. 그의 작품 가운데 〈汲江煎茶〉¹⁰⁾에서 이와 같은 禪機와 도교적 현묘한 특징이 잘 나타나는데, 이처럼 사대부화된 불교와 도가적 기질이 작품 속에 구현되어 나왔다는 점은 문학사상 아주 흥미 있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송대 유불도 삼교의 사상이 하나로 융합되어가는 추세 속에서 나타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 송대 차문화의 발전은 飲茶 풍조를 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송대에 이르러 차는 이미 식량과 비단, 소금, 철, 도자기 등과 마찬가지로 상업과 무역의 주류를 이루며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여 각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新茶와 名茶가 공급되어졌다. 또한 이와 같은 경제의 변영과 더불어 문인의 정치적 입장이 향상되어 지자 시인들은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많은 명차를 맛볼 수 있는 경제적 여유를 갖게 되었고 천성적으로 고상하고 우아한 기질을 지닌 문인의 성격은 차의 성질과 교묘하게 서로 어울리면서 음치는 송대 문인 사회에서 하나의 기풍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경제의 발전과 문인들의 지위 향상을 토대로 시인들은 차를 서로 선물로 주고받으며 서로 감사의 정을 시에 담아내기도 했는데 이러한 작품들이 宋詩史에서 적지 않게 보인다.¹¹⁾

여기서는 黃魯直이 시와 함께 雙井茶를 보내온데 대하여 감사를 표하는 소식의 〈黃魯直以詩饋雙井茶次韻爲謝〉를 예를 들어보고자 한다.

江夏無雙種奇茗, 강하의 들도 없는 자가 기이한 차를 심었다고,
汝陰六一夸新書. 여음의 육일거사는 새로 쓴 글에서 자랑했네.

10) 본 논문 20쪽 참조.

11) 王安石의 〈寄茶與和甫〉, 〈寄茶與平甫〉, 晁補之의 〈張杰以龍茶換蘇帖〉, 秦觀의 〈次韻謝李安上惠茶〉, 梅堯臣의 〈得雷太簡自制蒙頂茶〉, 〈謝人惠茶〉, 〈答建州沈田寄新茶〉, 蘇軾의 〈謝毛正仲惠茶〉, 〈黃魯直以詩饋雙井茶〉, 黃庭堅의 〈以雙井茶送孔常文〉, 〈雙井茶送子瞻〉, 陸游의 〈謝王彥光提刑見訪并送茶〉, 〈九日試霧中僧所贈茶〉, 楊萬里的 〈謝福建提舉應仲實送茶〉, 〈送新茶與許道人〉 등을 들 수 있다.

磨成不敢付僮僕, 갈아 만드는데 동복을 시켜 할 수 없어서,
 自看雪湯生璣珠. 스스로 눈 같은 탕에 구슬이 생기는 것을 지켜보며 달이네.
 列仙之儒瘠不腴, 신선들 파리하고 수척한 것은,
 只有病渴同相如. 오직 사마상여 같이 소갈병이 있어서라네.
 明年我欲東南去, 내년에 내가 동남쪽으로 내려가고자 하니,
 畫舫何妨宿太湖. 아름다운 놀잇배로 태호에 묵는 것도 어떠한가.¹²⁾

이 시는 소식이 황정건에게 쓴 화답시이다. 이 두 사람은 돈독한 사제관계이자 서로가 존경해 마지않던 文友이기도 했다. 시에서 소식은 江夏의 기이한 차를 보내 준 황정건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동시에 다음해에 황정건이 머무는 곳에 가서 함께 머물고 싶다는 뜻을 간곡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두 사람의 친교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이처럼 당시 문인들이 지인들끼리 서로 차와 함께 茶詩를 주고받으며 친교를 돈독히 하는 것이 하나의 시대적 기풍으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다.

2) 文學의 사회적 작용

송시의 특징 가운데 또 하나의 특징은 시가를 통해 政務와 민생을 논한 “議論之風”이 비교적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에 있다.¹³⁾ 이러한 풍격은 당시 문인 신분의 향상과 관련이 있다. 즉 송대 시인은 대부분 문인이자 관료이고, 또한 정치가였기 때문에 정치를 비평하고 민생을 반영하는 것이 그들 문학창작의 목적 가운데 하나였다. 송대 시인 가운데 이와 같은 작품의 특징이 두드러지는 사람으로는 范仲淹, 歐陽修, 蘇軾 등과 같은 문인들이 있는데, 이들은 차를 통해 당시 사회현실과 민생을 주시하고 작품에 반영하여 문학의 사회적 작용을 강조하였다. 여기서 우선 공납의 폐해를 거침없이 비판하고 있는 소식의 작품인 〈荔支嘆〉의 일단락을 예로 살펴보자.

12) 《蘇東坡全集》下, 續集卷一, 10쪽.

13) 朱靖華, 〈略說宋詩議論化理趣化〉, 《中國人民大學學報》, 1994年, 81쪽.

君不見武夷溪邊粟粒芽,	그대는 무이계곡의 속립아 차를,
前丁後菜相寵加.	정위와 채양이 앞다투어 실어가는 것을 보았는가,
爭新買寵名出意,	제각기 새 방법으로 총애를 얻으려고
今年鬪品出貢茶.	금년에는 차의 품평회를 열어 최상품을 바치려고 하네.
吾君所乏豈此物,	황제가 필요한 것이 어찌 이런 물건이라
致養口體何陋焉.	육신이나 돌본다면 얼마나 비루한가,
洛陽相君忠孝家,	낙양의 재상은 충효의 집안인데,
可憐亦進姚黃花.	가련하게 그도 역시 황모란을 바쳤네. ¹⁴⁾

송대는 위로 황실귀족뿐만 아니라 문인계층 역시 차문화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휘종 황제의 깊은 관심은 아래로 신하들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에 급속하게 퍼져 당시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차에 대한 황제의 관심이 깊어질수록 당시 백성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어 차를 생산하는 산지 주민들에게는 불만을 토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위의 시를 통하여 소식이 작품 속에서 당시의 사회적 현실과 민생의 고통을 여과 없이 그대로 작품에 반영해 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정무와 민생을 논한 차시 이외에도 차를 빌어 사람의 인격을 논한 시가 등장하는데, 즉 인격에 대한 중국의 전통적인 견해는 예술적 성취보다는 인격수양의 긍정이나 비판을 통해 판단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인격수양의 기준은 유가의 “忠義說”과 도가의 “風骨說”을 토대로 하는데 茶詩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었다. 북송 초기 문단의 영수라고 할 수 있는 歐陽修의 〈雙井茶〉에 이와 같은 차의 인격화 경향이 잘 표현되고 있어 살펴볼 만하다.

西江水清江石老,	서강의 맑은 물 옛 바위 끼고 흐르는데
石上生茶入鳳爪.	바위에서 자란 찻잎 봉의 발톱 닮았네.
窮臘不寒春氣早,	세모 춥지 않았고 봄 기운 일러
雙井茶生先百草.	다른 차들 앞서서 쌍정 새싹 돋았네.
白毛囊以紅碧紗,	흰 털 선 찻잎은 붉은 비단에 싸는데
十斤茶弄一兩芽.	새싹 한 냥이 열 근 차가 되는 것이라.
長安富貴五侯家,	장안에 사는 권문세가와 왕공 귀족들,

14) 《蘇東坡全集》上, 後集卷5. 510쪽.

一啜猶需三日券. 한번을 마시고도 사흘이나 자랑하네.
 寶雲日注非不精, 보운차 일주차도 정성들여 만들지만
 爭新棄舊世人情. 묵은 것 버리고 새것만 찾는 것이 세상 인심이라네.
 豈知君子有常德, 군자의 덕이 변치않음을 어찌 알라,
 至寶不隨時變易. 보배는 때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것.
 君不見建溪龍鳳團, 그대는 보았는가, 건계의 봉황단차,
 不改舊時香味色.¹⁵⁾ 옛날의 맛과 향기 색깔까지 그대로네.

위 시에서 소식은 먼저 세간의 풍조를 풍자하고 뒤이어서 “건계 용봉단차의 맛과 향기와 색의 변치 않음”을 “군자의 변치 않는 덕”으로 묘사하고 있다. 작자는 작품을 통하여 군자의 恒德을 말하면서 만일 군자의 품덕이나 덕성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면, 그가 어디에 있던지, 또 무엇이라고 부르던지, 좋은 것이든 오래된 것이든 상관없이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된다는 점을 분명한 메시지로 전달해 주고 있다. 이러한 인격화 특징은 〈次韻曹輔寄壑源試焙新芽〉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仙山靈雨濕行云, 신선한 산 신령스런 비 떠가는 구름에 젖어
 洗遍香肌粉未勻. 목욕하고 향기롭게 분단장한 듯
 明月來投玉川子, 밝은 달 떠올라 옥천자를 비추니
 淸風吹破武林春. 맑은 바람 불어 무림산의 봄을 떨어뜨릴 것만 같네.
 要知冰雪心腸好, 환한 모습과 고운 마음씨는
 不是膏油首面新. 화장으로 얼굴을 꾸며서가 아니라네.
 試作小詩君勿笑, 장난삼아 짧은 시를 썼다고 웃지 마시게.
 從來佳茗似佳人.¹⁶⁾ 예로부터 좋은 차는 가인과 같다네.

이 작품은 소식이 曹輔가 보낸 壑源의 햇차를 받고 쓴 시이다. 역시 사람의 인격에 빗대어, 좋은 차는 얼굴도 아름답고 심성도 고운 사람처럼 모양과 맛이 좋다고 비유적 수법을 통해 생동감있게 묘사하고 있다. 〈和錢安道寄惠建茶〉에서도 차의 맛을 빌려 “慙”하고 “猛”한 사대부를 칭찬하고 “妖”하고 “頑”한 무리를 폄하하고 비난하는 인격화 경향이 잘 표현되고 있다.¹⁷⁾

15) 孔選樂 主編, 《茶与文化》, 春風文藝出版社, 1990, 76쪽.

16) 《蘇東坡全集》上, 全集卷十八, 252쪽.

17) 《蘇東坡全集》上, 全集卷五, 93쪽. : “…縱復苦硬終可象, 汲黯少慙寬饒猛. 草茶無賴空有名, 高者妖

꾸로 읽어도 모두 문장이 된다.”¹⁹⁾고 설명한 것처럼, 詩作에 과감하게 새로운 기법을 도입하고자 노력한 끝에 창조된 예술 형태로써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거나 끝부터 거꾸로 읽어도 뜻이 통하고 平仄과 韻이 맞는 시의 형식을 말하며 “回紋”또는 “回環”이라고도 한다. 소식의 차시에도 회문의 형식으로 지은 작품이 보인다. 소식의 〈記夢二首〉를 예로 들어 살펴보자.

(其二)

空花落尽酒倾缸, 허공에 꽃 다 지자 술단지 기울었고
 日上山融雪涨江. 산 위에 해뜨자 눈 녹아 강물 불었네
 红焙浅瓿新火活, 불에 쪼 찻잎 얇은 사발 갓 피운 불
 龙团小碾斗晴窗.²⁰⁾용단차 맷돌에 갈며 밝은 창가에서 다도를 논하네

이 시의 주제는 茶로써 시 앞에 있는 서문에서 소식은 꿈속에서 미인이 雪水로 小茶團를 끓여 차를 음미하고 꿈속의 영감을 살려 두 수의 절구를 완성하였다²¹⁾고 밝혔다. 이 시를 한 자도 고치지 않고 다만 순서를 바꾸어 거꾸로 읽으면 아래와 같이 새로운 예술적 감흥을 지닌 茶詩가 탄생한다.

(其二)

窗晴斗碾小團龍. 창이 밝자 小團龍차를 갈아 우열을 가리는데
 活火新瓿淺焙紅. 불에 새 사발이 불어지네
 江漲雪融山上日. 강이 불고 눈이 녹으니 산위에 해가 떴고,
 缸傾酒盡落花空. 단지 기울여 술이 다하니 꽃이 다 지었네.

이외에도 회문시의 한 종류로 詩歌 중에서 부분적인 문자를 반복적으로 중첩하여 운용하여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게 보이고 청각적으로도 상응하는 음악적 효과를 거둬 고도의 시적 정취와 감흥을 자아내는 詩作 방법인 重句詩 또는 疊辭詩라고

19) 王麗偉, 〈宋代回文詩與宋詩樂主題〉, 《大眾文藝》, 河北師範大學, 2010, 145쪽. : “回文詩, 回夏讀之, 皆歌而成文也.”

20) 《蘇東坡全集》上, 全集卷十二, 180쪽.

21) 《蘇東坡全集》上, 全集卷十二, 179쪽. 〈記夢回文二首〉: “十二月二十五日, 大雪始晴, 夢人以雪水煮小茶團, 使美人歌以飲. 余夢中爲作回文詩, 覺而記其一句云: ‘亂点餘花唾碧衫.’ 意用飛燕睡花故事也. 乃續之爲二絕句云.”

도 하는 형식이 있는데, 송대 시인들 가운데에서도 뛰어난 작품이 많이 보인다. 蘇軾의 〈賞花歸〉를 예를 들어 살펴보자.

賞花歸去馬如飛, 꽃 감상하며 돌아오는데 말이 나는듯하다
去馬如飛酒力微. 가는 말이 나는 듯하니 술기운이 적어지고
酒力微醒時已暮, 술기운이 적어지어 깨어나니 이미 날이 저물었네
醒時已暮賞花歸. 술 깨자 날 저무니 꽃 감상하며 돌아오누나²²⁾

위의 작품은 “賞花歸去馬如飛酒力微醒時已暮”라는 14자의 字句로 구성된 중첩 字句를 가지고 재배열하여 七言絶句를 만든 것이다. 제 1구의 뒤부분의 “去馬如飛”이 제 2구의 처음에 나타나며, 뒷부분의 “酒力微”이 제 3구의 첫부분에 나타난다. 시인의 예술적인 재능과 재치가 보이는 시이다.

3. 蘇軾의 茶詩에 보이는 內儒外道

소식이 생존했던 북송은 정치적으로는 정쟁이 극심하였으나 문학과 예술적인 측면에서는 그 어느 시대보다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시대였다. 소식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문학적 전통이 농후한 가정에서 태어나 21세에 진사에 급제하면서 일찍부터 翰林學士겸 侍讀, 그리고 龍圖閣學士 등의 직에 올랐으나 후기에 이르러 왕안석 일파와의 마찰로 “烏臺詩案”을 겪은 뒤 黃州에 폄적되었다가 다시 嶺南의 惠州와 儋州에 폄적되는 등 순탄하지 못한 일생을 살았다. 그렇지만 소식은 문학적 측면에서 풍부하고 광범위한 창작활동으로 북송 시단의 혁신운동을 완성하였을 뿐만 아니라²³⁾ 차시 영역에 있어서도 새로운 시풍을 일으켜 후대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22) 江澄格, 〈蘇軾的回文詩和重句詩〉, 《漢字文化》, 2006, 第1期, 81쪽.

23) 葉燮, 《原詩》: “蘇軾之詩, 其境界皆開辟古今之所未有, 天地萬物, 嬉笑怒罵, 無不鼓舞于筆端.” 趙翼, 《甌北詩話》: “以文爲詩, 自昌黎始, 至東坡益大放厥詞, 別開生面, 成一代之大觀, ……尤其不可及者, 天生健筆一枝, 爽如哀梨, 快爲并剪, 有必達之隱, 無難顯之情, 此所以繼李杜後爲一大家也, 而不如李杜處亦在此.”

소식이 문학적인 측면, 특히 시가문학사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를 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타고난 재능에 기인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그의 사상적 특징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다. 소식은 사상적으로 일생동안 유불도 삼교의 사상을 모두 관통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그는 서로 모순적인 성격을 지닌 유가의 “入世”와 불가의 “超世”, 그리고 도가의 “避世”사상을 “內儒外道”의 형식으로 통일시켜 자신의 삶과 시가 창작활동을 통해 표현해냄으로써 소식 자신만의 독특한 사상적 특징을 갖추게 되었다²⁴⁾. 이러한 사상적 경향은 백거이가 만년에 유불도 사상을 자신의 생활환경의 변화에 맞게 교체 운영하였던 점과 비슷하며, 유가에서 “무슨 일이 잘 안 풀려서 궁색할 때는 홀로 자기 몸을 닦는데 힘쓰고, 일이 잘 풀릴 때는 세상에 나아가 좋은 일을 한다”²⁵⁾고 하는 종지와도 서로 통한다. 이러한 특성은 비록 소식이 일생동안 창작한 차시가 전체 시가작품의 수에 비해 미미하다고 하지만 그가 남긴 차시에서도 뚜렷한 자취를 보여주고 있어 소식의 문학 사상을 살펴보기에 부족함이 없다.

1) 以茶嘆世의 현실인식

소식에 대하여 程千帆과 吳新雷은 《兩宋文學史》에서 위로는 王禹偁, 歐陽修의 현실주의 작품을 계승하였고, 아래로는 자신의 문하에서 四學士와 六君子를 배출하였으며, 구양수 이후 가장 걸출한 문단의 영수가 되었다²⁶⁾고 밝힌 바와 같이 그는 현실주의 사회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일찍이 蘇轍이 “奮厲有當世志”²⁷⁾?”와 같이 밝힌 것처럼 초년에 “輔君治國”과 “經世濟民”의 이상과 정치를 혁신하고자 하는 포부를 품고 벼슬길에 올랐으나 왕안석의 신법에 반대하는 격렬한 정치 투쟁 속에서 수차 폄적을 당하는 정치적 박해를 당하는 불우한 인생을 살았다. 하지만 그는 창작활동에 있어서 시종 문학의 사회적 작용에 대해 관심

24) 조규백, 〈蘇軾의 詩文에 나타난 儒佛道 三家思想 考察(1)〉, 《中國學研究》, 第9輯, 1994, 191쪽.

25) 《孟子·盡心上》: “窮則獨善其身, 達則兼善天下”

26) 程千帆, 吳新雷, 《兩宋文學史》 上海古籍出版社, 1991, 129쪽.

27) 蘇轍, 〈東坡先生墓志銘〉, 《蘇東坡全集》上, 31쪽.

을 놓지 않고 당시 사회적 폐단과 모순을 시가 창작에 담아내어 커다란 문학적 성취를 거두었다. 이러한 그의 창작 태도는 茶詩에서도 여실히 드러나 역대로 “史詩”로 일컬어지는 〈荔支嘆〉과 같은 명작을 후세에 남겼다.

十里一置飛塵灰, 십리마다 설치된 역참에서는 재와 먼지가 날고,
 五里一喉兵火催. 오리마다 설치된 둔대는 병화를 재촉하네.
 顛坑僕谷相枕藉, 구덩이와 골짜기에 스러진 시체가 서로를 베게 삼아 누워
 있는 꼴을 보면,
 知是荔支龍眼來. 여지와 용안이 오는 줄 알았네.
 飛車跨山鶻橫海, 수레가 산을 날듯이 넘고 배가 바다를 매처럼 건너
 風枝露葉如新採. 가지와 이파리에 이슬 아직 남아 있어 막 탄 것 같네.
 宮中美人一破顏, 궁중 미인 크게 한 번 웃게 하기 위하여
 驚庭濺血流千裁. 먼지 속에 뿌린 피가 천 년 동안 흘렀다네.
 永元荔支來交州, 한나라 시절 여지는 교주에서 실어왔고,
 天寶歲貢取之洛. 천보시절에는 공물을 부주에서 실어왔네.
 至今欲食林甫肉. 지금 심정은 간신배 임보의 살을 씹어먹어도 시원치 않겠고
 無人舉觴酌伯遊. 소를 올려 인민의 고통을 막았던 백유를 위해 술잔들어
 제사를 지내도다.
 我願天公憐赤子. 바라노니 하늘이여 어린 백성 불쌍히 여겨
 莫生尤物爲瘡病. 특산물을 만들어 고통 받게 하지 마오.
 雨順風調百穀登, 비바람 순조로워 오곡이 풍성하여
 民不飢寒爲上瑞.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것이 최고라오.²⁸⁾

이 시는 哲宗 紹聖 2년 惠州에 유배 되었을 때 지은 작품이다. 작품 속에서 당시 사회에 대한 소식의 관심이 충분히 반영된 작품으로 황실의 사치와 탐욕으로 인해 당시 각 지역에서 행해지던 進貢의 폐단과 민중이 겪어야 했던 고충과 노고를 茶詩라는 형식을 통해 여과없이 비판하고 있다. 시의 전반부에서는 남쪽에서만 나는 신선한 여지와 용안을 양귀비에게 진상하기 위해 수없이 희생된 무고한 백성들의 고통과 비참한 현실을 묘사하고 이로 인해 일어나는 당시의 사회적 폐단을 깊이 탄식하였고, 이어서 황실의 충애를 받기위해 민중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는 관리들의 횡포를 묘사하면서 충효의 가문으로 소문난 낙양의 餞惟演마저도 姚黃花를

28) 《蘇東坡全集》上, 後集卷五. 510쪽.

바쳐 아침을 떠는 당시의 세태를 개탄하였다. 이와 동시에 백성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는 황제의 태도에도 안타까움과 불만을 함께 토로하고 있어 현실에 대한 그의 인식이 잘 드러나있다.

이와 같은 사회현실에 대한 관심과 비판적 태도는 소식이 37세가 되던 熙寧 5년에 향시 감독관으로 항주에 머물면서 지은 〈試院煎茶〉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我今貧病長苦飢，	나는 지금 병들고 가난하여 늘 굶주림에 시달려
分無玉碗捧蛾眉。	미인이 받쳐 든 옥 찻잔이 있을 리 없고
且學公家作茗飲，	관아의 차 끓이는 법이나 배워 차나 마실까 한다.
磚爐石銚行相隨。	벽돌 화로와 돌 탕관 쫓아 다닐까 생각한다.
不用撐腸拄腹文字五千卷，	배 속에 가득한 오천 권의 문장도 이제 쓸모없으니
但願一甌常及睡足日高時。	차 한 사발 마시고 낮잠 자길 바랄 뿐이라네. ²⁹⁾

이 시 역시 당시 정치적 현실을 반영한 작품으로 시의 앞부분에서는 유유자적하는 은일생활 속에서 차를 끓이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지만,³⁰⁾ 그 이면에는 당시 정치적으로 실권을 잡고 있던 왕안석의 건의에 의해 詩賦와 經典시험이 폐지되고 策論만을 시행되던 당시 과거제도의 문제점을 대한 지적³¹⁾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불만을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토로하는 托物言志의 표현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끝 구절에 가서 역설적으로 “차 한 사발 마시고 낮잠 자길 바랄 뿐이라네”라는 말로 당시 사회적 현실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털어버리고자 하는 관조적 태도를 보여 줌으로써 시의 여운을 더해주고 있다. 작품 속에 보이는 이러한 소극적이고 관조적인 태도는 오히려 현실에 대한 사회참여 의식과 관심을 더욱 더 두드러지게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소식의 문학적 매력이 돋보이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이외에도 〈四月十一日初食荔枝〉³²⁾과 〈種茶〉, 〈和錢安遵寄惠建茶〉 등과 같은 작품에서도 사회현실에 대한 관심이 잘 드러나고 있다. 우선 〈種茶〉는 宋 哲宗 紹聖 원년인 1094년 4월 소식이 寧遠軍節

29) 《蘇東坡全集》上, 全集卷三, 70쪽.

30) 본 논문 9쪽 참조.

31) 翁方綱, 《蘇軾補註》卷6: “是時甫用王安石議, 改取士之法, 罷詩賦帖經墨義, 專以策, 限定千言. 故先生呈諸試官詩云聊欲廢書眼, 秋濤春午枕. 正與此篇末句意同.”

32) 《蘇東坡全集》上, 後集卷五, 509쪽. : “不知天公有意无, 謫此尤物生海隅.”

度副使로 惠州에 폄직되어 머무는 동안 창작된 작품으로 혜주의 풍광과 함께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통해 사회현실에 대한 자신의 깊은 관심을 잘 드러내었다.³³⁾ 또한 송 熙寧 6년 錢安道가 보내온 차에 화답하는 시 〈和錢安道寄惠建茶〉에서도 관리들의 횡포로 인해 고통 받는 백성들의 상황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시종 문학의 사회적 작용에 대해 관심을 놓지 않고 사회적 폐단과 모순을 시가 창작에 담아내고자 했던 소식의 현실참여 의식을 이해하는데 훌륭한 자료가 되고 있다. 당시 建州는 공차제도가 성행하면서 관리들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 차의 생산을 늘려 나갔기 때문에 차의 산지로 유명해졌는데, 이로 인해 백성들의 고통은 점점 더 가중되었다. 이러한 당시 현실 상황에 대해 “누가 알았으랴 使者가 서쪽에서 와서 묶은 것을 열어 곱겹이 쌓인 차 백 조각을 얻게 될지” 라고 하여 백성들의 고통을 모른 척하는 관리들을 언급하고 이어서 이러한 관리들의 횡포를 좌시할 수 없었던 소식은 끝 구절에 가서 다시 “곱게 쌓인 것을 거두어 아까워하며 좋은 손님을 기다리나니, 이 시는 의미가 있어도 그대는 전하지 말게 공연히 세상 사람들을 노하게 하여 혹 나게 만들지도 모르니.³⁴⁾”와 같이 백성들의 고된 삶을 묘사하면서 당시의 현실세태를 폭로하였다.

그의 이러한 사상은 사회현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폐단과 모순을 시가 창작에 담아내고자 했던 문학적 인식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그의 작품 〈答喬舍人啓〉, 〈與元老侄孫四首〉, 〈答虔倅俞括奉議書〉 등에도 이러한 그의 주장이 잘 나타나 있는데³⁵⁾, 이는 바로 문장의 내용과 형식의 통일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또한 충실한 내용을 제일 먼저 고려하여 濟世之用을 구현해야 한다는 문학의 사회적 작용에 대한 작가인식의 표출이라 하겠다.

2) 曠達情懷의 초월의식

33) 《蘇東坡全集》上, 後集卷六, 519쪽. : “千團輸大官, 百餅銜私斗, 何如此一啜, 有味出吾囿.”

34) 《蘇東坡全集》上, 全集卷五, 93쪽. : “誰知使者來自西, 開緘磊落收百餅.”, “收藏愛惜待佳客, 不敢包裹鈔權幸. 此詩有味君勿傳, 空使時人怒生癩.”

35) 《蘇東坡全集》下, 續集卷十啓, 325쪽. 〈答喬舍人啓〉: “文章以華采爲末, 而以體用爲本”, 《蘇東坡全集》下, 續集卷七書簡, 220쪽. 〈與元老侄孫四首〉: “務令文字華實相副, 期于適用乃佳.”, 《蘇東坡全集》上, 後集卷十四書, 619쪽. 〈答虔倅俞括奉議書〉: “酌古以馭今, 有意于濟世之實用, 而不志于耳目之觀美.”

북송 중기 구양수의 뒤를 이은 문단의 영수로써 다재다능한 문학적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순탄치 못한 정치적 인생을 살아야 했던 소식은 그의 삶의 역경을 통해 창작적인 측면에서 깊이와 넓이를 더해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이 시기 노장과 불교사상에 심취한 그는 사상적인 측면이나 예술적인 측면에서 새롭게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의 창작활동도 유가사상에 바탕을 둔 豪放超邁한 경향에서 談雅高遠한 풍격을 추구하는 문풍으로 바뀌게 되었다.³⁶⁾ 그는 일생동안 정치와 민생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작품을 남겼지만 그 중에서도 차시에 그 자신의 범속을 초월한 탈속의 경지를 많이 읊었다. 그의 이러한 경향은 〈讀道藏〉³⁷⁾, 〈石蒼舒醉墨堂〉³⁸⁾과 〈送文與可出守陵州〉³⁹⁾ 등의 작품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또한 여기서 보이는 逍遙와 齊物은 도가의 虛無사상으로 결국 귀결되는데, 이러한 허무는 불가의 “言空之理”와도 서로 상통하기 때문에 소식은 순탄치 못한 인생의 역정에서 佛家 역시 자신의 우환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출로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소식은 때로는 비관적이면서도 허무한 정서를 보이기도 하지만 시종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游于物之外”의 생활태도를 유지 하였다. 즉 소식은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으나 우리의 욕망을 채워줄 물질은 한계가 있다.”⁴⁰⁾는 인식하에 현실적인 문제에서 자유롭게 벗어나 욕망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자 하였다. 우선 〈和蔣夔寄茶〉를 예로 들어 살펴보자.

我生百事常隨緣, 내 삶의 백가지 일들이 늘 인연 따라 일어나고
 四方水陸无不便. 사방에 물과 육지니 불편함이 없네.
 扁舟渡江适吳越, 조각배 타고 강을 건너 오월 땅에 가서
 三年飲食窮芳鮮. 삼년 내내 향기롭고 신선한 것들만 먹었네.
 ...

36) 崔榮淑, 《蘇軾詠茶詩研究》, 檀國大學校碩士論文, 2008, 17쪽.

37) 《蘇東坡全集》上, 全集卷二詩, 52쪽. : “至人悟一言, 道集由中虛. 心閑反自照, 皎皎如芙蕖.”

38) 《蘇東坡全集》上, 全集卷二詩, 54쪽. 〈石蒼舒醉墨堂〉: “自言其中有至樂, 適意無異逍遙游.”

39) 《蘇東坡全集》上, 全集卷二詩, 56쪽. : “清詩健筆何足數, 逍遙齊物自莊周.”

40) 《蘇東坡全集》上, 全集卷三十二記, 385쪽. 〈超然臺記〉: “人之所欲無窮, 而物之可以足吾欲者有盡.”

故人犹作旧眼看, 친구들은 오히려 내가 옛 안목을 지녔다 간주하고는
 謂我好尚如当年, 내 좋아하는 것이 옛날과 같다고 하네.
 沙溪北苑强分別, 沙溪와 北苑을 억지로 분별하여
 水脚一線爭誰先, 물이 스며드는 하나의 선으로 누가 나은지를 다투다네.
 淸詩兩幅寄千里, 맑은 시 두 폭은 천리 멀리로 부쳐지고
 紫金百餅費万錢, 좋은 차 때문에 만전을 썼네.
 吟哦烹噍兩奇絶, 시와 차 맛 둘 다 좋기는 하지만
 只恐偷乞煩封纒, 다만 시와 차를 구하는 이들 때문에 번거롭고 봉하고 매
 어두는 것이 걱정이네.
 老妻稚子不知愛, 늙은 아내와 어린 자식은 아꼈 줄을 몰라서
 一半已入姜鹽煎, 반이나 이미 생강, 소금을 넣은 차에 넣어 끓였네.
 人生所遇无可, 살면서 만나게 되는 일들 중 할 수 없는 것이 없으니
 南北嗜好知誰賢, 남과 북의 기호 중에 어느 것이 현명한지 알 수 있으랴.
 死生禍福久不擇, 생사와 화복은 옛부터 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更論甘苦爭蚩妍, 다시 달고 쓴 것을 논하여 아름답고 추한 것을 다투단 말인가.
 知君窮旅不自釋, 그대가 궁벽하게 지내면서도 스스로를 풀어주지 않음을
 아나니,
 因詩寄謝聊相鏹, 시로 부쳐 사양하고 서로 타일러 깊이 깨우치려 하네.⁴¹⁾

이 시는 神宗 熙寧 8年 소식이 항주 通判에 부임하여 密州의 知州로 있을 때 蔣夔가 新茶를 보내 온 당시의 일을 회상하고 지은 작품이다. 熙寧 4年 소식은 왕안석과 政見에 이견을 보이자 신종 황제는 소식을 항주의 通判에 임명하게 되는데, 작품 속에서 소식은 당시 항주의 변화한 도시와 궁벽한 밀주의 상황을 대비시켜 자신의 처지를 보다 더 선명하게 묘사하는 동시에 사상적인 측면에서 해학적인 요소와 함께 시간이나 공간의 어떤 구속도 배제된 자유의 절대 경지를 느끼게 하는 佛老사상의 경향도 엿볼 수 있다.

또한 소식은 고난의 세월을 풀어갈 수 있는 힘을 茶에서 찾았다. 그래서 그는 차시의 창작을 통해 범속한 세상을 벗어나 자연에 은둔해 살아가고자 하였다. 이러한 초월의식은 〈新城道中二首〉(其二)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身世悠悠我此行, 시끄러운 세상 빠져 나온 이번 순행길

41) 《蘇東坡全集》上, 全集卷七詩, 113쪽.

溪邊委轡聽溪聲. 시냇가에서 말고삐 풀어놓고 물소리 듣네.
 散材畏見搜林斧, 잘못 자란 나무는 도끼소리를 무서워하고
 疲馬思聞卷旆鉦. 지친 말은 회군 소식을 듣고 싶어하네.
 細雨足時茶戶喜, 가랑비 흠족할 때 차밭 가진 이 기뻐하고
 亂山深處長官清. 들쭉날쭉 산 많은 고을 현감은 청렴하다네.
 人間岐路知多少, 세상에 수많은 길 알면 얼마나 알겠는가
 試向桑田問耦耕. 42) 뽕밭 일구는 농부에게 길을 물어 가려네.

이 작품은 神宗 熙寧 6년에 항주의 속현을 시찰하기 위해 富陽에서 新城으로 갈 때 지은 시이다. 이 시는 작자가 시찰을 가는 도중에 길고 험한 산길을 지나가면서 이 길과 같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치열한 당쟁 속에서 발을 내딛지 못하고 지방 관리로 전락한 자신을 모습을 “散材”와 “疲馬”에 비유하였는데 여기서 “산재”는 莊子에 나오는 말로 쓸모없는 인재를 가리키는 말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한 말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길을 묻는 마지막 구절에 가서 작자는 공자가 은자 長沮와 桀溺에게 길을 묻는 고사⁴³⁾를 인용하면서 작자 자신도 歸隱하고자 하는 자신의 생각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 그의 작품 〈與子明兄〉⁴⁴⁾에도 인간 세계의 편협한 이해관계와 功利를 초월하고자 하는 작자의 의지가 보여진다.

소식의 정치적 일생은 몇 시기를 제외하곤 대부분 지방관으로 좌천되거나 폄적을 당하는 등 순탄치 못한 삶을 살았다. 烏臺詩案 이후 황주에 5년간, 그리고 만년에 다시 영남의 해주와 儋州에 약 6년간 폄적되었다. 이 시기는 소식에게 있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였지만 문학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성취가 컸던 시기이기도 하다.⁴⁵⁾ 당시 해남에 폄적되었다가 풀려나 돌아가면서 동생 子由에게 보낸 〈過嶺寄子由〉⁴⁶⁾에는 정치적으로 뜻을 이루지 못한 작자의 심정이 담겨있다. 하지만 소식은 이 시에서 유배지의 어렵고 힘든 생활을 소박하면서

42) 《蘇東坡全集》上, 全集卷四詩, 80쪽.

43) 《論語·微子編》: “滔滔者, 天下皆是也, 而誰以易之? 且而與其從避人之士也, 豈若從避世之士哉?”

44) 《蘇東坡全集》下, 續集卷五書簡, 160쪽. 〈與子明兄〉: “世事萬端, 皆不足介意, ……但胸中廓然無一物, 即天壤之內, 山川草木蟲魚之類, 皆足供吾家樂事也.”

45) 본 논문 12쪽 참조.

46) 《蘇東坡全集》下, 續集卷二集律詩, 45쪽. : “…夢里似曾遷海外, 醉中不覺到江南. …投章獻策謾多談, 能雪冤忠死亦甘. …山林瘴霧老難堪, 歸去中原茶亦甘.”

도 낙천적인 필치로 담담하게 표현하면서 현실적 어려움을 뛰어넘으려는 작가의 정신적 의지를 분출하였다. 이처럼 현실을 초탈하려는 작가의 의지는 〈汲江煎茶〉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活水還須活火烹, 생수 길어 타오르는 불로 달여야 하고
 自臨鈞石取深清, 낚시바위 옆에서 가서 깊고 맑은 물 떠 오네.
 大瓢貯月歸春甕, 큰 바가지로 달을 떠서 봄 항아리에 담아 두고
 小杓分江入夜瓶, 작은 바가지로 강물을 떠서 밤이면 병에 담네
 雪乳已翻煎提脚, 눈처럼 흰 물거품이 이미 물속에서 끓어 넘치니
 松風忽作寫詩聲, 솔바람 소리가 홀연히 들리는 듯 하네.
 枯腸未易禁三椀, 마른 창자는 석 잔의 차에도 쉽게 풀리지 않기에
 坐聽荒城長短更, 황량한 읍성에 앉아 길게 짧게 울려오는 경소리를 듣네.⁴⁷⁾

이 시는 현실에 집착하지 않고 본질의 세계와 혼연일체가 되어 현실을 초탈하려는 소식의 의지가 잘 나타나 있다. 소식은 시에서 차색과 차향의 유혹을 참지 못하고 빈 속에 세 잔의 차를 마시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구애받거나 구속되지 않는 청담한적한 생활의 정취를 그려내었는데 이는 아마도 그가 유배지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벗어나 세상을 초월할 수 있었던 것은 차와 함께하며 마음의 평정을 추구했기 때문일 것이다. 시 속에서 강물 속에 떠 있는 달까지 함께 길어 오고 찻물 끓이는 소리를 솔바람 소리로 듣는 작자는 차를 마시기 전부터 이미 物我一體의 경지에 이르렀다. 작자는 잠시 왔다가 자취 없이 사라져가는 바람으로 지핀 불과 차고 기울어지는 달을 떠다 우려낸 한잔의 차로 인생의 만남과 이별, 그리고 기쁨과 슬픔 모두를 기꺼이 받아드리는 초탈한 인생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농후한 차문화의 분위기 속에서 생활했던 소식은 일생동안 차도에 정통하였다. 차를 심고 끓이고 품평하는 일은 그의 기호가 되었으며, 茶詩 역시 그의 詩作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游諸佛舍一日飲碾茶七盞戲書勤師壁〉를 예로 들어 보자.

47) 《蘇東坡全集》上第, 後集卷七詩, 529쪽.

示病維摩元不病, 병에 걸렸다고 생각했던 유마힐은 병에 걸리지 않았고
 在家靈運已忘家. 집에 있던 사령운은 이미 집을 잊었네.
 何煩魏帝一丸藥, 어찌 위 황제의 환약이 필요하리,
 且盡盧仝七碗茶.⁴⁸⁾ 노동의 차 칠곱잔을 마시면 되리.

이 시는 宋 熙寧 6年 (1073年)에 소식이 항주 通判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지은 작품이다. 이 시는 소식이 울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淨慈, 南屏, 惠昭 등의 사찰을 유람하고 저녁 늦게 惠勤禪師를 만나 차를 마시고 느낀 감회를 묘사한 작품이다. 첫번째 구에서 維摩詰을 통해 大慈大悲한 보살 정신을 표현하고 이어서 謝靈運을 인용하여 작가의 恬淡虛無하고 悠然脫俗한 이상생활을 묘사하였다. 그리고 羽化登仙의 바램을 읊은 조비의 〈折楊柳行〉⁴⁹⁾에서 전고를 인용하여 작자의 정회를 풀어내는 동시에 “盧仝”의 〈走筆謝孟諫議寄新茶〉을 인용하여 모든 사람이 희망하는 낙관적이고 활달하며 자족할 줄 아는 養生의 道를 밝히고 있다. 또한 소식은 〈寄周安孺茶〉⁵⁰⁾중에서 자신이 차를 마신 후에 생리적으로 일어나는 발생 변화를 일종의 정신적인 해탈을 통해 해방감을 찾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소식의 인생 태도와 문학사상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內儒外道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4. 나오는 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송대는 경제와 문화의 발전과 함께 공차제도의 확립됨에 따라 차문화에 공전의 발전을 가져다 주었다. 황제로부터 일반 백성에 까지 차 문화가 보편화 되고, 유불도 사상의 융합의 영향을 받은 송대의 문인들은 현실에 바탕을 둔 유가적 의식 외에 내면적인 번민과 갈등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불교와

48) 《蘇東坡全集》上, 全集卷五詩, 91쪽.

49) 《魏文帝集》卷二: “西山一何高, 高高殊无极, 上有兩仙童, 不飲亦不食, 与我一丸藥, 光耀有五色, 服之四五日, 身体生羽翼.”

50) 《蘇東坡全集》下, 續集卷一古詩, 26쪽. : “清風擊兩腋, 去欲凌鴻鶴, …意爽飄欲仙, 頭轉輕如沐, …”

도교의 사상을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사상의 흐름은 현실정치에서 많은 좌절과 불행을 겪은 소식에게 시가 창작의 원동력이 되었다. 몸소 차를 심어 가꾸고 煎茶, 飲茶에도 정통했던 소식은 品茶要錄인 《書黃道輔後》, 《漱茶說》 등과 같은 전문적인 글을 남겼으며 차시 창작에도 열정을 기울여 적지 않은 영차시를 남겼다. 그의 차시는 형식면에서 정형화된 율시 외에도 규율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형식이나 앞뒤에서 읽어도 모두 말이 되는 回文詩 등과 같은 다양한 형식의 시가를 창작하였으며, 내용면에서도 당시 송시 특징 가운데 하나인 “議論之風”의 풍격을 반영하여 당시 정치와 사회적인 현실을 진솔하게 표현하였다. 또한 그는 문학의 사회적 작용에 관심을 쏟아 형식보다는 내용을 중시하였으며 불교와 노장사상에 심취한 후부터는 사상적인 면에서 정신적 해탈을 통해 초탈한 인생관을 추구하였다. 소식의 영차시를 살펴보면 그는 시작을 통하여 생활 속의 벗인 차와 함께 자신의 현실세계를 초연하게 받아들이며 달관의 경지에 이르러자 했다. 소식은 자신의 현실을 타하기 보다는 마음을 버리지 않는 內儒外道の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보여주었다.

《參考文獻》

- 《蘇東坡全集》, 中國書店, 1986.
 孔凡禮, 《蘇軾詩集》, 中華書局, 1982.
 孔凡禮, 《蘇軾文集》, 中華書局, 2004.
 孔選樂 主編, 《茶与文化》, 春風文藝出版社, 1990.
 葉 燮, 《原詩》, 人民文學出版社, 1979.
 吳熊和, 《唐宋詞通論》, 浙江古籍, 2006.
 翁方綱, 《蘇軾補註》, 卷6, 廣文書局, 1980.
 王文誥, 《蘇文忠公詩編注集成》, 學生書局, 1967.
 于觀亭, 《茶文化漫談》, 中國農業出版社, 2003.
 袁宏道, 《袁宏道集箋校》, 上海古籍出版社, 1981.
 劉子健, 《兩宋史研究彙編》, 聯經出版, 1987.
 游國恩, 《中國文學史講義》, 天津古籍, 2007.
 李 觀, 《李觀集》, 中華書局, 1981.

- 李莫森,《咏茶詩詞曲賦鑒賞》,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2006.
- 程千帆,吳新雷,《兩宋文學史》,上海古籍出版社,1991.
- 陳瀟冬,《蘇軾詩選》,人民文學出版社,1957.
- 馮應榴,《蘇文忠公詩合注》,上海古籍出版社,2001.
- 夏承燾·吳鷺山·蕭涓,《蘇軾詩選注》,百花文藝出版社,1982.
- 黃坤譯 註,《朱熹詩文選譯》,鳳凰出版社,2011.
- 江澄格,〈蘇軾的回文詩和重句詩〉,《漢字文化》,第一期,2006.
- 關履權,〈宋代的茶禁與茶戶、茶販的反抗鬥爭〉,《文史哲》,第二期,1978.
- 金文凱,〈淺談蘇軾的咏茶詩詞〉,《三明學院學報》,第三期,2006.
- 繆士毅,〈蘇東坡愛茶傳佳話〉,《烹調知識》,第一期,1996.
- 繆士毅,〈名人茶趣〉,《食品與健康》,第六期,2001.
- 劉玉紅,〈蘇軾咏茶詩與宋代茶俗〉,《華夏文化》,第四期,1999.
- 劉鶴飛,〈讀蘇軾茶詩〉,《茶葉通訊》,第二期,1990.
- 閔 謹,〈從蘇軾的茶詩中看宋代茶文化的特徵〉,《四川民族學院學報》,第三期,2010.
- 張嫻靜,孫 云,〈東坡茶緣〉,《茶葉科學技術》,第三期,2008.
- 張連舉,〈蘇軾詩中的茶文化〉,《唐都學刊》,第一期,1990.
- 朱靖華,〈略說宋詩議論化理趣化〉,《中國人民大學學報》,1994.
- 陳 默,〈淺析宋代茶文化繁盛的原因〉,《文史雜誌》,第三期,2004.
- 許淨瞳,〈略論宋詩與蘇詩〉,《現代語文(文學研究版)》,第四期,2008.
- 行 一,〈蘇軾咏茶詩淺釋〉,《農業考古》,第四期,1991.
- 김진경,《蘇軾 黃州時期 詩 研究》,서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3.
- 이용순,《蘇軾 黃州時期 詩와 詩論 연구》,서울: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5.
- 임소영,《蘇軾의 禪詩 연구》,서울: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9.
- 최영숙,《蘇軾 詠茶詩 研究》,서울: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8.
- 한미애,《蘇軾 詩文創作과 佛教思想》,서울: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0.
- 류종목,〈蘇東坡의 文學理論〉,《中國文化研究》,第2輯,1993.
- 류지원,〈蘇軾의 禪과 開悟에 대한 文獻 考察〉,《中國學論叢》,第29輯,2010.
- 서은미,〈宋代의 飲茶生活과 茶 生産의 發達〉,《東洋史學研究》,第90輯,2002.
- 신현석,〈蘇軾의 謫居時期 文學 考察〉,《中國人文科學》,第7輯,1988.
- 우준호,〈蘇東坡의 政治社會諷刺詩 研究〉,《韓國中語中文學會》,第17輯,1995.
- 조규백,〈蘇軾의 詩文에 나타난 儒佛道 三家思想 考察(1)〉,《中國學研究》,第9輯,1994.

<Abstract>

On the Song dynasty, the development of culture brought the tea culture to prosper, and the convergence of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sim gave great influence to the literary circles. The literati of the Song era had both Confucianism, based on their thoughts of actualities, and also, Taoism and Buddhism, which was the solution of their inner agonies. This kind of trend appears on the poetries of Su shi, a poet who was greatly interested in teas. Su shi created the Eunil(meaning seclusion) theory witch shows the combination of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He used his tea poetries to furtively express about the contradictions of the Sung society, and about the pain which people suffers from the administrations.

But after he got several political dispreciations, unable to do what he wanted, he wrote poems unrelated to reality, about accepting the present and taking a philosophical view of life, which expressed transcendence. He expressed his way of life from his work: Confucianism in the inside, and Taoism showing from the outside. Beyond all these, Su Shi's tea poetry(the Yong cha-shi) gave big challenges on it's usual form. He tried not to follow the common form of verse, and tried to adopt many other literal techniques such as the Hui wen-shi, bringing up the era's Yong cha-shi to a higher level.

Key Words : Su shi Yong cha-shi Convergence of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Realization of reality Transcendence

이 논문은 2011년 11월 20일에 접수되어 2011년 12월 15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1년 12월 20일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